



멀티플레이'서' 외야수 도전

FA급 이적 KIA 서동욱

개인 최고 기록 승승장구

안치홍 복귀에 경쟁 직면

“예측 수비로 단점 넘을 것”

“위기를 기회”로 만든 KIA의 멀티플레이어 서동욱이 또 다른 기회에 도전한다. 넥센에서 올 시즌을 시작했던 서동욱은 KIA에서 가을 잔치를 기대하고 있다. 본인도 예상하지 못했던 올 시즌이다. 넥센이 젊은 피들로 세대 교체에 나서면서 서동욱의 입지가 줄어들었다. 위기의 순간 그에게 축복 같은 기회가 왔다. 그의 성실함과 재능을 안타까워한 넥센 임영엽 감독이 ‘무조건’ 트레이드로 친구인 KIA 김기태 감독에게 서동욱을 보내

준 것이다. LG시절 함께했던 스승의 품에 안긴 서동욱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친정으로 돌아온 서동욱은 김민우에 이어 2루의 새로운 전력에 되어 총횡무진 움직였다. 6일 경기전까지 107안타를 때려낸 그는 0.299의 타율과 함께 16개의 홈런도 터트리면서 62타점을 올렸다. 안타, 타율, 홈런, 타점 모두 자신의 역대 최고 기록이다. 2루수뿐만 아니라 우익수, 1루수까지 맡으면서 수비의 빈 틈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위기를 기회로 만든 그에게 또 다른 위기가 왔다. 데뷔 후 가장 많은 시간을 그라운드에서 보내고 있는 그는 최근 바지 사이즈를 줄여야 할 정도로 살이 빠졌다. 체력적으로 만만치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는 정신적으로도 긴장감을 늦출 수가 없다. 타석에서의 긴장감은 물론 수비에서의 집중

력도 필요한 서동욱이다. KIA를 대표하는 2루수 안치홍이 지난 4일 군복무를 끝내고 팀에 복귀하면서 서동욱은 또 다른 경쟁과 변화에 직면했다. 안치홍의 제대를 앞두고 우익수 자리에서 테스트를 받아온 서동욱은 착실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수행해가고 있는 중이다. 실수가 허용되지 않은 자리인 만큼 외야로 나가는 서동욱의 마음가짐은 특별하다. 서동욱은 “외야는 실수가 나오면 바로 실점으로 연결될 수 있는 자리다. 보기에는 여유있어 보이는데 사실 많이 긴장하고 집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발 빠른 외야수들이 많은 만큼 외야수 서동욱의 움직임이 느려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는 차분하게 또 정확하게 공을 쫓으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스피드가 떨어진다는 단점을 만회하기 위한 나름의 노력과 전략이 있

다. 서동욱은 “LG시절에 코치로 계셨던 임영엽 감독님이 기회가 나는 대로 여기저기 많은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래서 어느 포지션이든 큰 부담은 없다. 물론 자리에 따라서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다르니까 많이 생각하고 공부해야하는 등 어려움은 있다”며 “나는 다른 외야수들에 비해서 스피드가 떨어진다. 상대 타자들의 성향을 분석하면서 미리 예측해서 스타트를 끊으려고 한다. 그렇지 못하고 뒤늦게 전력으로 뛰다 보면 시야가 흔들려서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 최대한 안정되게 수비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야구 인생의 갈림길에서 새로운 길을 개척한 서동욱, 돌아온 친정에서 ‘가을잔치’라는 해피엔딩을 꿈꾸며 외야로 향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복귀 강정호 삼진...감독은 무한신뢰

“곧 선발...팀 공격 힘 실을 것”

강정호(29·피츠버그 파이리츠)가 복귀 전 첫 타석에서 삼진을 당했다. 강정호는 6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PNC 파크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 방문경기에서 2-10으로 뒤진 5회말 1사 주자 1루에서 투수 제프 로크를 대신해 타석에 섰다.



부상에서 복귀한 후 첫 타석이었다. 강정호는 볼 카운트 1스트라이크에서 상대 선발 애덤 웨인라이트의 공 3개를 연속 파울로 만들면서 버텼지만, 5구째 시속 122km 커브에 배트를 헛돌려 삼진을 당했다. 클린트 허틀 피츠버그 감독은 6회초 수비 때 강정호를 벤치로 불러들이고, 외야수 애덤 프리에저를 내보냈다. 강정호의 시즌 타율은 0.243에서 0.242(236타수 57안타)로 조금 떨어졌다. 강정호는 17일 만에 바리그 타석에 섰다.

한편 클린트 허틀(59) 피츠버그 파이리츠 감독은 6일(이하 한국시간) MLB닷컴과 인터뷰에서 “우리가 강한 모습으로 정규시즌을 끝내는 데 강정호가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허틀 감독은 “곧 선발 출전 기회를 줄 생각”이라며 “강정호가 팀 공격에 힘을 실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올 시즌 강정호가 드러낸 수비 부진에도 신뢰를 잃지 않았다. 지난해 실책 14개를 기록한 강정호는 올해 이미 12개의 실책을 범했다.

강정호는 지난달 20일 마이애미 말린스와 경기에서 8회 헤드 파스트로 2루에 슬라이딩하다 왼쪽 어깨 인대를 다쳤고 다음날(8월 21일) 부상자 명단에 올랐다. 마이네리그 트리플A에서 두 차례 재활 경기를 소화해 5타수 1안타를 기록한 강정호는 예정대로 바리그에 복귀했지만, 첫 번째 기회에서는 아쉬움을 남겼다.

허틀 감독은 “안정을 찾으면 견고했던 2015년처럼 좋은 수비를 할 수 있다. 강정호가 9월 팀에 얼마나 도움을 줄지 지켜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날 경기는 세인트루이스가 12-6으로 대승을 거뒀다. 세인트루이스 마무리 오승환은 이날 휴식을 취했다. /연합뉴스

박병호 60일짜리 부상자명단 올라...시즌 마감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박병호(30·미네소타 트윈스)가 15일짜리에서 60일짜리 부상자명단(DL)으로 자리를 옮겼다. 미국 미네소타주 지역 신문 ‘파이어니어 프레스’는 6일(한국시간) 미네소타 구단 이 내야수 제임스 베레스퍼드를 40인 로스터에 등록하기 위해 박병호를 60일짜리 DL로 보냈다고 보도했다. 박병호는 지난달 26일 오른손 중지 쪽 손등 힘줄을 바로잡는 수술을 받았고, 현재 재활을 소화하고 있다.

지난달 16일 부상자명단에 올라갔던 박병호는 이번엔 60일짜리 DL로 자리를 옮기면서 메이저리그 진출 첫해를 마감했다. 박병호는 올해 메이저리그 62경기 타율 0.191(215타수 41안타), 12홈런, 24타점, OPS(출루율+장타율) 0.684를 기록했다. 7월 이후에는 마이네리그 트리플A에서만 뛰었는데, 31경기 타율 0.224(116타수 26안타), 10홈런, 19타점, OPS 0.823을 남겼다. /연합뉴스

기보배·최미선 광주FC-상주상무전 시축

11일 광주월드컵경기장

대한민국을 빛낸 ‘양궁 여제’ 기보배(광주광역시청)와 최미선(광주여대)가 광주월드컵경기장을 찾는다. 프로축구 광주 FC가 오는 11일 오후 6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펼쳐지는 K리그 클래식 29라운드 상주상무와의 경기에서 2016 리우 올림픽 양궁 금메달리스트인 기보배와 최미선을 초청한다. 2016 리우 올림픽 여자 양궁 단체전에서 8연패 신화를 활짝한 기보배와 최미선은 경기에서 앞서 광주팬들에게 인사하고, 시축자

로 나서 광주의 승리를 응원할 예정이다. 이들은 810번이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광주월드컵경기장 그라운드에 오른다. ‘810’은 올림픽 여자 양궁 단체전 8회 연속 금메달과 표적에서 화살 1발로 얻을 수 있는 최고점수 텐(10)을 더한 의미다. 한편 광주는 이날 열리는 상주전 승리로 창단 첫 6강(상위 스포츠) 진출을 노리겠다는 각오다. 광주는 승점 37점으로 7위에 랭크, 상위 스포츠 마지막 6위 성남 FC를 승점 1점 차로 추격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308^승

세리나 윌리엄스 US오픈 16강전 승리 메이저 단식 본선 최다승...페더러 넘어

187^주

결승 진출엔 연속 세계 1위 신기록

세리나 윌리엄스(1위·미국)가 메이저 대회 단식 본선 최다승 기록을 세웠다. 윌리엄스는 7일 미국 뉴욕의 빌리진 킹 내셔널 테니스센터에서 열린 US오픈 테니스대회(총 상금 4630만 달러·약 517억원) 8일째 여자단식 16강전에서 아로슬라바 시베도바(52위·카자흐스탄)를 2-0(6-2 6-3)으로 완파했다. 1998년 호주오픈에서 처음 메이저 대회에 데뷔한 윌리엄스는 이로써 메이저 대회 단식 본선에서 308승째를 기록, ‘테니스 황제’ 로저 페더러(스위스)의 307승 기록을 넘어섰다. 이 대회 전까지 이 부문 여자부 기록은 마르티나 나브라틸로바의 306승이었다.

윌리엄스는 이번 대회를 통해 세 가지 기록에 동시에 도전하고 있다. 먼저 이날 메이저 대회 단식 본선 최다승 기록을 수립했고, 남은 대회 결과에 따라 최장 기간 연속 세계 랭킹 1위 유지, 메이저 대회 여자단식 최다 우승 기록 달성 여부가 정해진다.

윌리엄스는 2013년 2월부터 이번 주까지 186주 연속 세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는 슈테피 그라프(독일)가 1987년 8월부터 1991년 3월까지 이어간 186주 연속 1위와 타이 기록이다. 따라서 윌리엄스가 이번 대회가 끝난 뒤에도 세계 1위를 유지할 경우 187주 연속 세계 1위라는 신 기록을 세운다. 윌리엄스는 최소한 결승에 올라야 세계 1위를 지킬 수 있으며 결승에 오르지 못하면 안젤리크 케르버(2위·독일)에게 1위를 내줘야 한다.

또 케르버가 결승까지 진출할 경우 윌리엄스는 무조건 우승해야 1위를 유지할 수 있다. 윌리엄스가 우승하면 메이저 대회 단식 본선에서 23번째 우승을 차지, 이 부문 최다 기록도 세우게 된다. 현재까지는 그라프와 윌리엄스가 나란히 22회 우승 기록을 나눠 갖고 있다. 마거릿 코트(호주)가 24회 우승한 기록이 있으나 이는 프로 선수들의 메이저 대회 출전이 허용된 1968년 이전 기록도 포함한 수치다.

윌리엄스는 준준결승에서 시모나 할레프(5위·루마니아)와 맞붙는다. 상대 전적에서 윌리엄스가 7승 1패로 우위를 보인다. /연합뉴스

▶ 세리나 윌리엄스가 7일 미국 뉴욕의 빌리진 킹 내셔널 테니스센터에서 열린 US오픈 테니스대회 8일째 여자단식 아로슬라바 시베도바와의 16강전에서 공격에 성공한 뒤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